

20~50대 여성의 연령 및 실루엣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적합성

권수애[†] · 최종명 · 손부현
충북대학교 패션디자인정보학과

Body Satisfaction and Fitness Apparel Depending on Age and Silhouette in Women 20~50 Years of Age

Soo Ae Kweon[†] · Jong Myoung Choi · Boo Hyun Sohn

Dept. of Fashion Design Inform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2010년 1월 4일), 수정일(2010년 2월 1일), 게재확정일(2010년 2월 26일)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body satisfaction and fitness apparel depending on age and silhouette. The subjects were 254 females 20~50 years of age living in Chungju South Korea. There are various body types in women over the age of 35, the lower part of the body-development type, regular type, the upper part of the body-development type, and the rectangular body type. In addition, there is a lower satisfaction level in circumferences related with apparel fit, especially in the sleeve length, armhole, and crotch length. Therefore, a size system is needed that considers various body types in ready-to-wear clothing for middle-aged women. Design, color, and pattern are most important in clothing purchases by unmarried women, but the ease of laundry management and price discounts are the most significant for clothing purchases by married women. The upper part of the body-development type is unsatisfactory in the size-fit of sleeve length and shoulder width, but the lower part of the body-development type is unsatisfactory in the circumference of the waist, hip, abdominal, girth of skirt, and crotch length. The rectangular body type and the lower part of the body-development type are unsatisfactory in movement comfort, especially in hip girth and crotch length. The upper part of the body-development type is unsatisfactory in the movement comfort of the chest and elbow girth.

Key words: Body satisfaction, Fitness apparel, Body types, Size-fit, Movemental comfort; 신체만족도, 의복적합성, 인체유형, 치수적합성, 동작 적합성

I. 서 론

의복의 제품성능 가운데 맞춤새는 의복이 자신의 신체치수에 적합한 정도로서, 의복구입 후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성능 중의 하나이다. 의복속성 및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

모델을 제시한 Eckman et al.(1990)는 점포 착의실에서 의복을 입어보는 단계에서 최소한 맞춤새가 만족되어져야 최종적으로 구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 Shim and Bickle(1993)은 몸에 잘 맞는 의복은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행복에 필수적이라고 하여 기성복의 맞춤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신체만족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체와 동일시되는 의복과도 관계가 있다. 신체만족

[†]Corresponding author
E-mail: sooae@cbnu.ac.kr

도가 높을수록 기성복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황진숙, 1997). 신체적 변화를 수반하는 연령변화는 젊은 시절에 추구하는 신체적 매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의복을 통해 신체적 매력을 재인식하면서 의복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Kaiser, 1990).

그러나 중년기 여성들은 시간과 경제력이 가장 풍부한 수요층임에도 불구하고 기성복 구입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중년기 여성들은 과거에 비해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의 관심이 증대되어 생활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패션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어 의류상품의 다양화, 개성과,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중년의 여성은 체형변화에 따라 30대 이전과 많이 달라지므로 그 나이에 맞는 디자인을 찾기 어렵다. 중년기 여성들의 의복에 대한 흥미, 태도, 습관은 연령에 관계없이 젊었을 때와 같으나(심정희, 박수진, 2007), 실제 자기 체형의 변화는 인정하지 않은 채 젊은 층의 디자인을 선호하면서 특정 디자인에 따른 불편함은 감수하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복의 맞춤새는 의복의 최종 구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 또 성별, 연령, 체형, 선호하는 패션 경향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맞춤새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석혜정, 김인숙, 2003). 그러므로 중년층 소비자들의 체형변화를 고려할 때 중년 소비자들의 체형적 특징과 심리적 욕구를 파악하여 체계화 시키고 실제 의류제품에 합리적으로 적용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이영숙, 1998)에도 아직 중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성복 구매 및 치수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50대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신체만족도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심리적·체형적 변화로 중년기가 시작되는 35세를 기준으로 35세 이전 집단과 35세 이후 집단으로 구분하여 신체만족도와 의복적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연령에 따른 치수적합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실루엣에 따른 연구는 적으므로 실루엣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적합성을 살펴봄으로써 실루엣에 따른 기성복의 치수체계 유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및 기간

20~50대 여성 254명을 대상으로 2009년 5월에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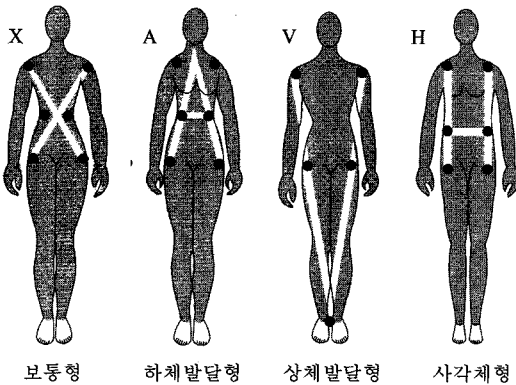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구분	빈도(명)	%
연령	20대	115	45.3
	30대	49	19.3
	40대	60	23.6
	50대	30	11.8
신체지수(BMI)	수척	91	37.3
	정상	121	49.6
	비만	32	13.1
결혼유무	미혼	118	48.1
	기혼	127	51.9
월평균의복구입비	10만원 이하	136	55.0
	10~20만원	82	33.2
	20~30만원	29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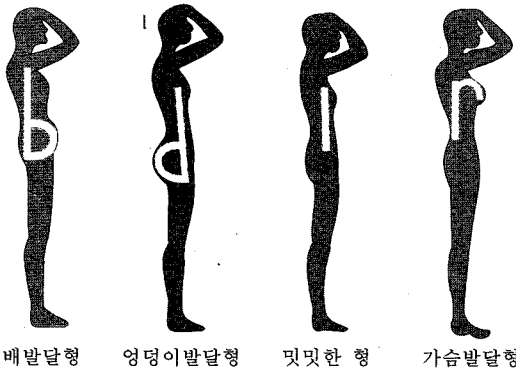
시되었으며 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설문지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특징, 자신의 신체치수에 관한 문항과 정면 및 측면의 실루엣 조사, 신체 각 부위의 특징에 따른 부분별 체형조사와 신체만족도 13문항(키, 얼굴크기, 어깨너비, 목, 가슴, 허리, 배, 엉덩이, 사지길이, 윗팔, 넓적다리, 장딴지, 발목), 의복구매시 평가하는 기준에 관한 16문항, 연령 및 실루엣에 따른 의복치수적합성에 관한 10문항, 의복의 동작적합성에 관한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신의 신체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서는 신체 정면의 체형을 보통형, 하체발달형, 상체발달형, 사각체형 등 4유형으로 구분하였고<그림 1>, 측면유형은 배발달형, 엉덩이발달형, 뒤틀린 형, 가슴발달형 등 4유형으로 구분(이순원 외, 2002)하여<그림 2> 본인이 지각한대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부분형태별 신체만족도는 어깨형태(보통형, 솟은 어깨, 처진 어깨, 한쪽 어깨 치우침) 4유형, 가슴형태(납작형, 보통형, 돌출형, 새가슴형) 4유형, 등형태(보통체형, 젖힌 체형, 숙인 체형) 3유형, 정면 하반신형태(다이아몬드형, 보통형, 뒤틀린 형) 3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그림을 보고 체크하도록 하였다. 본인의 신장과 체중을 자가 기입하도록 하여, 체지방률과 건강 관련 연구 및 관련된 질환을 진단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BMI지수를 산출하였으며 아시아인들의 비만기준을 25로 판정하고 있는 WHO의 것



<그림 1> 인체 정면 실루엣 유형



<그림 2> 인체 측면 실루엣 유형

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 Jequier(1987), 김영설(1990), 김상국 외(1995)가 제시한 판정기준에 의해 20.0 미만을 수척, 20.0~24.9을 정상, 25.0 이상을 비만으로 판정하였다.

3. 자료분석

설문조사된 자료를 SPSSWIN 11.0의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연령대별 신체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실루엣에 따른 신체만족, 부분형태별 신체만족을 분석하였으며, 실루엣에 따른 의복치수 및 의복동작적합성도 살펴보았다. 연령구분에 따른 의복구매시 평가기준과 치수적합성을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 연령구분에 따른 정면 및 측면 실루엣 분포를 Crosstab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신체만족도

1) 연령에 따른 신체만족도

연령대별 신체만족도를 BMI지수에 따른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으로 구분하여 5점 리커드 척도인 전혀 만족하지 않다(1)~매우 만족한다(5)로 평가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때 신체만족도를 평가하는 13항 중 가슴, 허리, 배, 엉덩이, 윗팔, 넓적다리, 장딴지, 발목 등 8항목을 가지고 평균치를 구하여 둘레만족도로 하였으며, 키, 사지길이 등 2항목의 평균치를 가지고 길이만족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전체 만족도와 둘레만족도에서 집단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만족도와 둘레만족도에서 수척형이 정상형이나 비만형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날씬한 체형이 신체적 이상형(Lennon, 1998)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20대에 해당하는 여대생의 경우 체형에 대한 관심도가 극

<표 2> 연령대별 신체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

연령대	전체 만족도				둘레만족도				길이만족도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	F 값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	F 값	수척형	정상형	비만형	F 값
20대	2.97A (n=66)	2.60B (n=37)	2.50B (n=3)	4.43*	2.92A (n=66)	2.50B (n=37)	2.40B (n=3)	4.59*	2.96 (n=66)	3.05 (n=37)	2.00 (n=3)	1.69
30대	3.17A (n=17)	2.61B (n=26)	2.75AB (n=5)	5.65**	3.11A (n=17)	2.51B (n=26)	2.82AB (n=5)	7.01**	3.14 (n=17)	3.07 (n=26)	3.10 (n=5)	0.02
40대	3.29A (n=7)	2.63B (n=38)	2.24B (n=13)	5.61**	3.15A (n=7)	2.64AB (n=38)	2.17B (n=13)	4.45*	2.80 (n=7)	2.63 (n=38)	3.42 (n=13)	1.78
50대	-	2.85 (n=19)	2.35 (n=8)	3.09	-	2.75 (n=19)	2.39 (n=8)	2.06	-	2.78 (n=19)	2.61 (n=8)	0.12

*p<.05, **p<.01

A,B,C는 Duncan test 결과임(A>B>C)

히 높고 수척한 체형을 선호(Douty & Brannon, 1984; Lennon, 1988)하는 까닭에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실제보다 스스로 더 비만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만형의 경우 30대에서는 정상형보다 다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출산 전후에 영향을 작용한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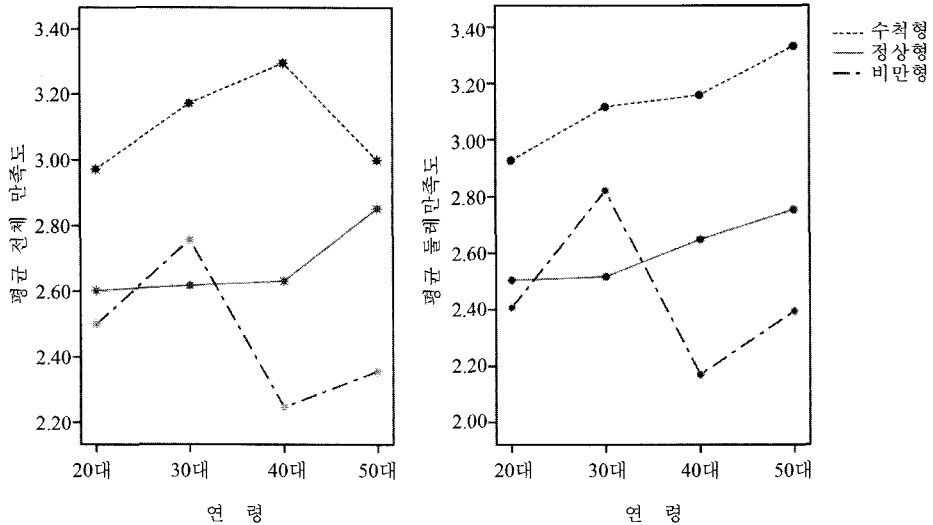
또 신체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전체 만족도와 둘레만족도에 대하여 <그림 3>에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전체 만족도와 둘레만족도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BMI지수가 다른 신체지수에 비해 체지방율과 상관성이 높고, 비만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기 때문에 전체 만족도에 비만과 관련

된 둘레만족도가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35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연령구분에 따른 신체만족도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 연령구분에 따른 실루엣 분포

연령구분에 따른 정면 및 측면 실루엣의 분포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정면 실루엣에 있어서만이 차이를 나타내어 35세 이전은 보통형(40.0%)과 하체발달형(40.0%)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 35세 이후는 하체발달형(34.4%)>보통형(26.6%)>상체발달형(21.1%)>사각체형(18.0%) 순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년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호르몬의 변화로 30대 중반 이전과 체형이 많이 변화되기 때문



<그림 3> 연령별 신체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

<표 3> 연령구분에 따른 실루엣 분포

(단위: 인원(명))

연령	구분	정면 실루엣				측면 실루엣			
		보통형	하체발달형	상체발달형	사각체형	배발달형	영덩이발달형	뒤틀린형	기슴발달형
35세 이전 (n=125)	인원	50	50	11	14	37	45	25	19
	비율	40.0%	40.0%	8.8%	11.2%	29.4%	35.7%	19.8%	15.1%
35세 이후 (n=121)	인원	34	44	27	23	49	36	20	23
	비율	26.6%	34.4%	21.1%	18.0%	38.3%	28.1%	15.6%	18.0%
전체 (n=246)	인원	84	94	38	37	86	81	45	42
	비율	33.2%	37.2%	15.0%	14.6%	33.9%	31.9%	17.7%	16.5%
$\chi^2(df)$		12.32(3)**				3.60(3)			

**p<.01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체변화에도 불구하고 중년 기 여성들의 의복에 대한 흥미, 태도, 습관은 연령에 관계없이 젊었을 때와 같아서 실제 자기 체형의 변화는 인정하지 않은 채 젊은 층의 디자인을 선호하기 때문에 기성복 구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 연구(심정희, 박수진, 2007)를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신체유형을 반영한 새로운 치수규격이 중년층 여성의 기성복에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측면 실루엣에서는 35세 이전 집단은 엉덩이발달형(35.7%), 배발달형(29.4%) 순으로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35세 이후 집단은 배발달형(38.3%), 엉덩이발달형(28.1%) 순으로 많은 비율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3) 실루엣에 따른 신체만족도

실루엣에 따른 신체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인 전

혀 만족하지 않다(1)~매우 만족한다(5)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정면 및 측면 실루엣에 따라 얼굴크기, 어깨너비, 목, 허리, 배, 엉덩이, 사지 길이, 넓적다리, 장딴지, 발목 등의 신체만족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목, 허리, 배부위와 하반신의 체형을 이루는 엉덩이, 넓적다리, 장딴지, 발목은 정면과 측면 실루엣 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얼굴크기와 어깨너비는 정면 실루엣의 신체만족도에서만 유의적인 차이가 있고, 사지길이는 측면 실루엣의 신체만족도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편 가슴부위는 정면 및 측면 실루엣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신체부위가 대부분 슬림한 형태를 선호하는데 반해 가슴의 경우 지나치게 큰 가슴유형이나 빈약한 가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되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성민정, 김희은, 2001)

<표 4> 실루엣에 따른 신체만족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신체부위	정면 실루엣				F 값	측면 실루엣				F 값
	보통형	하체 발달형	상체 발달형	사각 체형		배 발달형	엉덩이 발달형	밋밋한 형	가슴 발달형	
키	2.88(1.21)	3.00(1.18)	2.76(1.26)	3.11(1.18)	0.657	2.94(1.18)	2.89(1.19)	3.30(1.09)	2.64(1.32)	2.207
얼굴크기	3.23(1.17) A	2.88(1.24) AB	2.66(0.99) B	2.71(1.29) B	2.811*	2.89(1.10)	2.93(1.19)	3.16(1.25)	2.86(1.37)	0.593
어깨너비	3.22(1.03) A	3.39(1.10) A	2.45(1.00) B	2.71(1.27) B	8.420***	2.92(1.06)	3.27(1.15)	3.32(1.11)	2.88(1.23)	2.429
목	3.44(1.02) A	3.33(1.07) A	2.68(1.16) B	2.89(1.18) B	5.651**	2.85(1.08) C	3.30(1.07) B	3.75(0.86) A	3.19(1.25) BC	7.074***
가슴	2.73(1.05)	2.85(0.98)	2.58(1.13)	2.74(1.06)	0.635	2.80(0.96)	2.70(1.01)	2.57(1.04)	2.93(1.21)	0.970
허리	3.15(1.10) A	2.85(1.06) A	2.34(1.12) B	2.14(0.94) B	9.820***	2.48(1.04) B	2.85(1.00) B	3.36(1.24) A	2.62(1.14) B	6.853***
배	2.69(1.09) A	2.38(0.99) AB	2.08(1.12) BC	1.91(1.01) C	5.736**	1.95(0.95) C	2.47(0.92) B	3.11(1.06) A	2.26(1.21) BC	13.127***
엉덩이	2.94(1.04) A	2.39(1.02) B	2.45(0.97) B	2.31(1.07) B	5.483**	2.38(0.99) B	2.43(1.07) B	2.93(0.87) A	2.83(1.20) A	4.086**
사지길이	3.06(1.17)	2.69(1.06)	2.79(1.23)	3.09(1.14)	2.031	2.79(1.10) B	2.67(1.07) B	3.39(0.99) A	3.00(1.36) AB	4.294**
뒤통	3.04(1.06)	2.74(1.03)	2.61(1.07)	2.85(0.92)	1.919	2.81(0.93)	2.74(1.01)	3.20(0.93)	2.69(1.33)	2.395
넓적다리	2.80(1.09) A	1.92(1.03) B	2.55(1.08) A	2.40(1.11) A	10.133***	2.37(1.03) B	1.95(0.90) C	3.02(1.13) A	2.55(1.34) B	9.918***
장딴지	2.71(1.20) A	2.04(1.01) B	2.74(1.26) A	2.60(1.21) A	6.359***	2.50(1.09) B	2.02(0.98) C	3.02(1.15) A	2.60(1.44) B	7.763***
발목	3.23(1.03) A	2.66(1.07) B	3.05(1.31) AB	3.03(1.12) AB	4.077**	3.06(1.09) AB	2.75(1.00) B	3.34(1.09) A	2.79(1.35) B	3.209*

*p<.05, **p<.01, ***p<.001

A,B,C는 Duncan test 결과임(A>B>C)

에서 길이항목과 만족도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높으며, 상반신의 가슴둘레를 제외한 모든 둘레항목에서 신체만족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실루엣에 따른 각 신체부위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정면 실루엣에서는 어깨너비와 목부위는 상체발달형과 사각체형이 보통형이나 하체발달형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또 허리부위는 사각체형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상체발달형, 하체발달형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배부위에서는 사각체형이, 엉덩이부위에서는 보통체형을 제외한 모든 체형에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넓적다리, 장딴지, 발목부위에서는 하체발달체형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측면 실루엣에서도 미팅한 체형에 비해 상체발달체형이나 엉덩이 및 가슴발달체형이 낮은 신체만족도를 보여 대체로 슬림한 마른체형이 높은 신체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분형태별 신체만족도

부분형태별 신체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가슴에 있어서는 납작형이 보통형이나, 돌출 및 새가슴형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어깨부위에서는 솟은 어깨가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하반신형태를 결정하는 엉덩이, 넓적다리, 장딴지, 발목을 형태별로 신체만족도를 보면 엉덩이, 넓적다리, 장딴지, 발목 등 모든 부위에서 다이아몬드형이 보통형이나 미팅한 형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어 가슴에 있어서는 미팅한 형이 낮은 만족도를 보이나 하반신의 경우 볼륨이 있는 유형보다는 보통형이나 미팅한 형의 슬림한 형태를 가질 때 더 신체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 의복적합성

1) 의복구매시 평가기준

연령구분에 따른 인체유형별 의복구매시 고려하는 평가항목에 차이가 있는지를 5점 리커드 척도(전혀 고려하지 않음; 1점, 매우 고려함; 5점)로 평가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의복 구매시 평가기준에서 세탁관리용이, 디자인, 색상과 패턴, 활인판매 유무에 따라 유의

적인 차이를 보였다. 디자인 및 색상과 패턴은 35세 이전 집단이 35세 이후 집단보다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탁관리용이와 활인판매 유무는 35세 이후 집단이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체형결점보완, 소재, 착용감, 활동성, 촉감, 치수맞음새, 유행성, 이미지 적합, 가격, 상표, 광고 유무, 품질 등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2) 치수적합성

연령구분에 따른 치수적합성을 ‘전혀 적합하지 않다’(1)~‘매우 적합하다’(5)로 평가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연령에 따른 치수적합성에서는 소매길이, 진동둘레, 아랫배둘레, 스커트폭, 바지통, 바지밑위길이 등에서 35세 이후 집단이 35세 이전 집단에 비해 더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의복의 치수가 커짐에 따라 증가되는 허리둘레나 엉덩이둘레 이외의 둘레항목에서 35세 이후의 여성들이 의복적합성이 떨어짐을 의미하며, 연령증가에 따른 치수부적합을 가져올 수 있는 부위로, 이러한 항목에서 중년 여성의 체형변화에 따른 치수체계가 더욱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치수적합성에서 젊은 여성보다는 중년, 노년층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선행연구(최혜선, 이경미, 1995)와 일치하였다.

또한 소매길이나 진동둘레, 바지밑위길이에서의 치수부적합은 중년여성을 위한 의복제작시 둘레치수는 패턴에 반영하여 치수만족도가 높은 반면, 키를 고려하지 않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그레이딩 편차를 줌으로써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져 의복치수적합성이 떨어진다는 선행연구(임지영, 2008)와 일치된다. 한편 실루엣에 따른 의복치수적합성에서의 차이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정면 실루엣에서는 옷길기와 진동둘레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소매길이, 어깨너비,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아랫배둘레, 하의길이, 스커트폭/바지의 통, 밑위길이 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매길기와 어깨너비에서는 상체발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치수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아랫배둘레, 하의길이, 스커트폭/바지의 통, 밑위길이 등에서 하체발달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치수적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면 실루엣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5> 부분형태별 신체만족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부분형태	유형	신체만족도	F 값	
가슴	납작형(n=48)	1.96(0.89) B	13.536***	
	보통형(n=140)	2.99(0.95) A		
	돌출형(n=40)	2.80(1.01) A		
	새가슴(n=21)	2.95(1.11) A		
어깨너비	보통형(n=172)	3.27(1.09) A	6.226***	
	숏은 어깨(n=32)	2.41(1.10) B		
	쳐진 어깨(n=33)	2.94(1.14) AB		
	한쪽 어깨 쳐짐(n=9)	2.67(1.00) AB		
하반신형태	엉덩이	다이아몬드형(n=78)	2.27(1.01) B	4.954**
		보통형(n=150)	2.73(1.01) A	
		밋밋한 형(n=23)	2.57(1.27) AB	
	넓적다리	다이아몬드형(n=78)	1.81(0.95) B	16.487***
		보통형(n=150)	2.61(1.08) A	
		밋밋한 형(n=23)	2.78(1.27) A	
	장딴지	다이아몬드형(n=78)	1.92(1.04) B	12.788***
		보통형(n=150)	2.67(1.16) A	
		밋밋한 형(n=23)	2.87(1.21) A	
	발목	다이아몬드형(n=78)	2.63(1.19) B	5.414**
		보통형(n=150)	3.09(1.05) A	
		밋밋한 형(n=23)	3.26(1.13) A	

p<.01, *p<.001

A,B,C는 Duncan test 결과임(A>B>C)

<표 6> 연령구분에 따른 의복구매시 평가기준

(단위: 평균(표준편차))

평가기준	연령구분	고려정도	t 값
체형결점보완	35세 이전(n=125)	3.98(0.91)	-0.645
	35세 이후(n=123)	4.33(0.98)	
소재	35세 이전(n=125)	3.57(0.94)	-0.656
	35세 이후(n=123)	3.65(1.03)	
착용감	35세 이전(n=125)	3.83(0.84)	-0.473
	35세 이후(n=123)	3.89(0.95)	
활동성	35세 이전(n=125)	3.78(0.89)	-0.654
	35세 이후(n=123)	3.85(0.97)	
촉감	35세 이전(n=125)	3.71(0.78)	-0.997
	35세 이후(n=123)	3.83(0.98)	
치수맞음새	35세 이전(n=125)	3.95(0.79)	-0.344
	35세 이후(n=123)	3.99(1.01)	
세탁관리용이	35세 이전(n=125)	3.22(0.98)	-4.271***
	35세 이후(n=123)	3.76(1.04)	
디자인	35세 이전(n=125)	4.43(0.76)	3.866***
	35세 이후(n=123)	3.99(1.01)	
색상과 패턴	35세 이전(n=125)	4.32(0.81)	2.823**
	35세 이후(n=123)	4.01(0.91)	
유행성	35세 이전(n=125)	3.50(1.01)	-0.065
	35세 이후(n=123)	3.51(0.97)	
이미지 적합	35세 이전(n=125)	4.24(0.79)	1.245
	35세 이후(n=123)	4.10(0.99)	
가격	35세 이전(n=125)	3.99(0.94)	1.260
	35세 이후(n=123)	3.83(1.08)	
할인판매 유무	35세 이전(n=125)	3.40(1.04)	-3.177**
	35세 이후(n=123)	3.82(1.02)	
상표	35세 이전(n=125)	3.24(0.98)	-0.469
	35세 이후(n=123)	3.30(1.05)	
광고 유무	35세 이전(n=125)	2.54(0.99)	-1.692
	35세 이후(n=123)	2.76(1.07)	
품질	35세 이전(n=125)	3.94(0.86)	-0.325
	35세 이후(n=123)	3.98(1.03)	

** $p < .01$, *** $p < .001$

3) 동작적합성

인체유형별 동작적합성을 동작행위와 신체부위로 구분하여 5점 척도(전혀 편안하지 않음; 1점, 매우 편안함; 5점)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정면 실루엣에 따라 '서있음' 동작을 제외한 모든

동작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사각체형이나 하체 발달형이 보통형에 비해 불편하다고 평가하였다. 신체부위에 있어서도 사각체형이 보통형을 비롯한 다른 체형에 비해 불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어깨, 가슴, 팔꿈치에서는 사각체형과 상체발달형이 다른 체형에 비해 불편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엉덩이와 밑

<표 7> 연령구분에 따른 의복치수적합성

(단위: 평균(표준편차))

부 위	연령구분	치수적합도	t 값
소매길이	35세 이전(n=126)	3.12(0.96)	2.072*
	35세 이후(n=125)	2.85(1.10)	
어깨너비	35세 이전(n=126)	3.27(0.80)	1.932
	35세 이후(n=125)	3.06(0.94)	
옷길이	35세 이전(n=126)	3.10(0.91)	1.387
	35세 이후(n=125)	2.94(0.99)	
진동둘레	35세 이전(n=126)	3.25(0.71)	2.583*
	35세 이후(n=125)	3.00(0.83)	
허리둘레	35세 이전(n=126)	3.00(0.93)	0.930
	35세 이후(n=125)	2.89(0.96)	
영덩이둘레	35세 이전(n=126)	2.92(0.97)	1.491
	35세 이후(n=125)	2.74(0.98)	
아랫배둘레	35세 이전(n=126)	2.99(0.88)	2.890**
	35세 이후(n=125)	2.65(1.00)	
하의 길이	35세 이전(n=126)	2.83(0.93)	1.675
	35세 이후(n=125)	2.62(1.11)	
스커트폭, 바지통	35세 이전(n=126)	2.98(0.95)	2.793**
	35세 이후(n=125)	2.64(0.97)	
바지밑위길이	35세 이전(n=126)	3.03(0.84)	3.757***
	35세 이후(n=125)	2.60(0.97)	

* $p < .05$, ** $p < .01$, *** $p < .001$

<표 8> 실루엣에 따른 의복치수적합성

(단위: 평균(표준편차))

부 위	유 형	보통형	하체발달형	상체발달형	사각체형	F 값
		n=84	n=93	n=38	n=35	
소매길이		3.23(1.02) A	2.94(1.04) AB	2.63(1.02) B	2.91(1.04) AB	3.142*
어깨너비		3.33(0.82) A	3.17(0.88) AB	2.84(0.94) B	3.09(0.88) AB	2.869*
옷길이		3.24(0.88)	2.96(0.95)	2.87(1.01)	2.83(1.01)	2.404
진동둘레		3.29(0.75)	3.06(0.77)	2.97(0.78)	3.06(0.85)	1.926
허리둘레		3.23(0.91) A	2.75(0.92) BC	3.05(0.89) AB	2.66(1.02) C	5.148**
영덩이둘레		3.23(0.84) A	2.48(1.03) C	2.89(0.89) AB	2.69(0.90) BC	9.611***
아랫배둘레		3.23(0.73) A	2.62(1.04) B	2.71(1.03) B	2.51(0.81) B	8.381***
하의길이		2.93(0.96) A	2.45(1.01) B	2.79(1.06) AB	2.91(1.06) A	3.828*
스커트폭, 바지통		3.06(0.99) A	2.60(0.92) B	2.73(0.93) AB	2.91(1.01) AB	3.575*
바지밑위길이		3.13(0.86) A	2.60(0.95) B	2.62(0.98) B	2.83(0.85) AB	5.559**

* $p < .05$, ** $p < .01$, *** $p < .001$

A,B,C는 Duncan test 결과임(A>B>C)

<표 9> 실루엣에 따른 동작적합성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 분	유 형	정면 실루엣				측면 실루엣			
		보통형	하체 발달형	상체 발달형	사각 체형	배 발달형	엉덩이 발달형	뒤틀린 형	가슴 발달형
		(n=82)	(n=92)	(n=37)	(n=34)	(n=80)	(n=81)	(n=43)	(n=42)
동 작	서있음	3.60(0.87)	3.38(0.93)	3.19(0.84)	3.50(0.99)	3.31(0.82)	3.46(0.93)	3.58(0.87)	3.48(1.08)
		F=1.937				F=0.882			
	앉 음	3.34(0.89) A	2.91(0.86) B	2.73(0.96) B	2.76(0.89) B	2.88(0.90)	3.04(0.84)	3.14(0.94)	3.10(1.05)
		F=6.230***				F=1.003			
	팔앞굽힘	3.21(0.92) A	2.92(0.85) AB	2.76(1.01) B	2.76(0.95) B	2.84(0.84)	2.96(0.88)	3.19(0.93)	3.05(1.12)
		F=3.140*				F=1.418			
	팔위올림	3.01(0.96)	2.81(0.85)	2.59(0.92)	2.71(0.97)	2.75(0.87)	2.88(0.91)	2.98(0.89)	2.76(1.05)
		2.099				F=0.684			
	서서 허리굽힘	2.94(0.89) A	2.62(0.86) AB	2.62(0.86) AB	2.47(0.89) B	2.63(0.7)	2.69(0.93)	2.77(0.92)	2.83(1.08)
		F=3.155*				F=0.583			
	쭈그리고 앉음	2.84(0.96) A	2.44(0.87) B	2.54(0.96) AB	2.42(1.05) B	2.61(0.89)	2.49(0.95)	2.68(1.00)	2.62(1.03)
		F=3.144*				F=0.429			
계단오름	3.24(0.77) A	2.83(0.76) B	2.95(0.81) AB	2.94(0.82) AB	2.95(0.78)	3.01(0.73)	3.20(0.70)	2.86(1.00)	
	F=4.252**				F=1.524				
신 체 위 부	어 개	3.33(0.80) A	3.37(0.89) A	2.94(0.95) B	2.94(0.89) B	3.10(0.91)	3.37(0.81)	3.18(0.69)	3.24(1.12)
		F=3.664*				F=1.308			
	가 슴	3.24(0.88) A	3.16(0.88) A	2.72(0.84) B	2.75(0.87) B	2.98(0.82)	3.27(0.79)	3.05(0.86)	2.86(1.18)
		F=4.872**				F=2.503			
	소매/진동	3.21(0.95) A	3.08(0.83) A	2.61(0.90) B	2.86(0.96) AB	2.90(0.81)	3.19(0.88)	3.14(0.87)	2.83(1.16)
		F=4.110**				F=2.151			
	팔꿈치	3.47(0.83) A	3.16(0.81) AB	2.69(0.95) C	3.11(0.95) B	3.05(0.85)	3.33(0.80)	3.18(0.97)	3.17(1.03)
		F=6.926***				F=1.284			
	허 리	3.28(0.95) A	2.84(0.77) B	2.81(0.96) B	2.60(0.94) B	2.73(0.90)	3.04(0.78)	3.11(1.03)	3.00(1.01)
		F=6.335***				F=2.346			
	배	3.23(0.90) A	2.80(0.84) B	2.68(0.97) B	2.53(0.91) B	2.56c(0.91)	2.99ab(0.79)	3.30a(0.90)	2.88bc(0.99)
		F=7.020***				F=7.077***			
엉덩이	3.23(0.90) A	2.66(0.89) B	2.92(0.95) AB	2.67(0.86) B	2.82(0.87)	2.74(0.86)	3.11(0.97)	3.05(1.08)	
	F=6.764***				F=2.127				
밑 위	3.16(0.89) A	2.71(1.00) B	2.98(1.02) AB	2.78(0.79) B	2.73(0.87)	2.80(0.91)	3.14(0.87)	2.95(1.22)	
	F=4.062**				F=1.944				
무 료	3.44(0.81) A	3.09(0.89) B	2.78(0.75) B	2.83(0.89) B	2.98(0.79)	3.20(0.94)	3.27(0.75)	3.12(1.01)	
	F=7.234***				F=1.386				

*p<.05, **p<.01, ***p<.001

A,B,C는 Duncan test 결과임(A>B>C)

위에 있어서는 사각체형과 하체발달형이 다른 체형에 비해 불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측면 실루엣 유형에 따른 동작적합성에서는 신체부위 배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배발달형>가슴발달형>엉덩이발달형>밋밋한 형 순으로 불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정면 및 측면 실루엣에 따라 동작적합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므로 체형을 고려한 기성복의 치수체계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IV. 결 론

2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연령 및 실루엣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의복적합성을 알아보고 연령 및 실루엣에 따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연령별 신체유형에 따른 신체만족도에서 수척형의 신체만족도가 높아 수척형이 선호되는 경향이었으며, 비만형의 경우 30대에서 정상형보다 다소 높게 나왔으나 이는 출산 전후에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여겨져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2. 연령에 따라 실루엣 분포에 차이가 있으며, 35세 이전 집단은 보통형과 하체발달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반해 35세 이후 집단은 하체발달형, 보통형, 상체발달형, 사각체형 등 다양한 유형이 분포되어 중년 여성의 다양한 신체유형을 반영한 새로운 치수규격이 중년 여성복에 요구된다.

3. 정면 및 측면 실루엣에 따라 목, 허리, 배부위와 하반신의 체형을 이루는 엉덩이, 넓적다리, 장딴지, 발목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얼굴크기와 어깨너비는 정면 실루엣의 만족도에서, 사지길이는 측면 실루엣의 신체만족도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가슴부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신체부위가 대부분 슬림한 형태를 선호하는데 반해 가슴의 경우 지나치게 큰 가슴유형이나 빈약한 가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상체발달형의 어깨너비와 목부위의 만족도가 낮고, 사각체형의 허리와 배부위의 만족도가 낮다. 엉덩이부위에서는 보통체형을 제외한 모든 체형에서 만족도가 낮으며, 넓적다리, 장딴지, 발목부위에서는 하체발달체형의 만족도가 낮다. 측면 실루엣에서도 밋밋한 체형이 상체발달체형이나 엉덩이 및 가슴발달체형보다 신체만족도가 높아 대체로 슬림한 마른체형의 신체만족도가 높다.

5. 가슴은 납작형이 만족도가 낮고, 솟은 어깨의 만족도가 낮다. 하반신은 다이아몬드형의 만족도가 낮다. 가슴에 있어서는 밋밋한 형이 낮은 만족도를 보이거나 하반신의 경우는 슬림한 형태를 가질 때 신체 만족도가 높다.

6. 35세 이전 집단이 의복구입시 디자인, 색상과 패턴을 많이 고려하는데 반해 35세 이후 집단은 세탁관리용이와 할인판매 유무를 더 고려한다.

7. 35세 이후 집단이 이전 집단에 비해 둘레항목에서 의복치수적합성이 낮으며, 소매길이나 진동둘레, 바지 밑위길이에서의 치수부적합은 중년 여성복 제작시 키를 고려하지 않고 둘레치수에 따른 일률적인 그레이딩으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어져 의복치수적합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위로 체형이 고려되어야 한다.

8. 상체발달형의 소매길이와 어깨너비의 치수적합성이 낮으며, 하체발달형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아랫배둘레, 하의길이, 스커트폭/바지의 통, 밑위길이의 치수적합성이 낮다.

9. 사각체형이나 하체발달형의 동작적합성이 낮으며, 특히 어깨, 가슴, 팔꿈치에서는 사각체형과 상체발달형의 동작적합성이 낮고, 엉덩이와 밑위에서는 사각체형과 하체발달형의 동작적합성이 낮다.

따라서 체형변화가 심하여 다양한 체형이 분포되는 중년 여성을 위한 기성복 설계시 연령과 실루엣에 따라 나타나는 체형특징과 만족도를 고려하여 의복구매, 치수 및 동작적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국, 김시덕, 김영수, 박정근, 윤성원, 이덕분, 이용수, 이명천. (1995). *운동과 건강*. 서울: 대한 미디어.
- 김영철. (1990). 비만증의 분류 및 평가. *한국영양학회지*, 23(5), 227-240.
- 김은경, 최혜선, 이경미. (2003). 중년 여성 기성복 하의의 착용실태 및 맞춤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1-15.
- 석혜정, 김인숙. (2003). 성인여성의 연령 비만도에 따른 기성복 맞춤새 선호 경향 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1(9), 17-29.
- 성민정, 김희은. (2001). 비만판정지수에 의한 여대생의 체형 분류 및 체형 인지도. *한국외류산업학회지*, 3(3), 227-234.
- 심정희, 박수진. (2007). 중년 여성의 체형에 따른 의복태도. *한국외류학회지*, 31(1), 33-43.
- 이순원, 김구자, 남윤자, 노희숙, 정명숙, 최경미, 최유경. (2002). *의복체형학*. 서울: 교학연구사.

- 이영숙. (1998). 중년 여성 기성복의 현황에 관한 연구. *원주 대학술논문총*, 30, 433-452.
- 임지영. (2008). 40·50대 중년 여성의 기성복 구매 및 치수 만족도 조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3), 335-341.
- 최혜선, 이경미. (1995). 중년 여성의 기성복 치수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1), 187-201.
- 황진숙. (1997). 남녀노년층의 자아존중감과 기성복 만족에 대한 신체만족도와와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21(8), 1417-1426.
- Douty, H. I., & Brannon, E. L. (1984). Figure attractiveness: Male and female preference for female figur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2), 122-137.
- Eckman, M., Damhorst, M. L., & Kadolph, S. J. (1990). Toward a model of the in-store purchase decision process: Consumer use of criteria for evaluating women's appar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13-22.
- Jequier, E. (1987). Energy, obesity, and body weight standards.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28(2), 1035-1036.
- Kaiser, S. B. (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 Macmillan.
- Lennon, S. J. (1988). Physical attractiveness, age and body typ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6(3), 196-203.
- Shim, S., & Bickle, M. C. (1993). Women 55 years and older as catalog shoppers: Satisfaction with apparel fit and catalog attribut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1(4), 53-64.